

### 죽어가는 소나무를 위한 Requiem 아트큐브 3차 전시 개최

- \* 2차 전시 : ~ 2017년 1월 31일(화)
- \* 장 소 : 절물자연휴양림
- \* 참여 작가 : 이다슬
- \* 전시 작품 : 총 2점 - 호.오.이 episode 1(Requiem)
- \* 주 최 : 제주문화예술재단

- 제주문화예술재단, 아트큐브 2016년도 마지막 전시는 이다슬 작가의 '호.오.이 episode 1(Requiem)'
- 아트큐브는 이동형 전시관으로 제주의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제주의 각 공간과 작품을 더욱더 특별하게 하는 장치로 관람객들에게 '찾아가는 전시' 제공

□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이하 재단)은 '이동형 컨테이너 전시관 아트큐브' (가칭, 이하 아트큐브)의 3차 전시를 2017년 1월 31일까지 절물자연휴양림에서 개최한다.

□ 아트큐브는 컨테이너로 제작된 이동형 전시관으로 공간의 경계를 허물고 언제 어디서든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마련된 예술작품 전시공간이다. 현재 총 2동(3.0m\*2.4m\*2.58m)이 제작·설치되었다.

□ 3차 전시 참여 작가인 이다슬은 "호.오.이 episode 1(Requiem)"이라는 주제로,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작가의 이야기와 가루가 되어 사라져버린 소나무들을 위한 이야기를 전달한다.

□ 아트큐브 1동에서 보여주는 전시는 '단풍을 볼 수 없는 청년에 대한 이야기'로 적녹색약의 눈을 가진 작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드러내고 있다.

작가는 자신은 볼 수 없는 16개의 색각테스트 이미지와 작가가 색각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받은 놀림과 따돌림, 그리고 미술 작업을 하며 색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혼란스러움과 공포심을 스피커로 흘러나오는 개구리들의 소리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전한다. 또한, 색각테스트 이미지에서 -1, -2가 표기된 부분은 작가가 볼 수 있는 만큼의 색을 표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작가의 세계를 함께 보고 공감할 수 있다.

*'나는 단풍으로 물든 숲을 보고 싶었지만, 가족과 함께 가을 산에 올랐을 때 내가 본 것은 흑갈색으로 뒤덮인 나무들뿐이었다. 아빠와 엄마가 그리고 동생들이 단풍을 보며 예쁘다고 말할 때 나도 예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중학생이 돼서야 나의 눈이 적녹색약(赤綠色弱)인 것을 알았고 빨간색과 녹색이 섞이면 나의 눈은 흑갈색으로 인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단풍을 볼 수 없는 눈을 가졌다.'*

□ 아트큐브 2동에서 보여주는 전시는 '5818'로 5818이라는 인식표를 달고 죽어간 소나무를 위한 Requiem(레퀴엠)을 보여준다.

원래 레퀴엠은 죽은 이들을 위한 미사곡을 뜻하지만, 작가는 아트큐브를 둘러싼 아직 살아있는 나무들을 위한 노래를 하고 싶다고 전했다. 전시관 안에는 5818 인식표와 함께 5818 소나무가 살아있을 때의 사진과 베어진 사진, 그리고 당시 작가가 썼던 짧은 일기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

*'소나무가 없는 숲은 넝쿨에 점령당한 지 오래이지만, 사람들은 잘 모른다. 어둠에 갇힌 숲 속에서 사람들은 갈 길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죽어가는 소나무를 베어 가루를 만들고 태우는 것밖에 없지만, 그 연기마저 다시 숲을 가득 채우며 아름답지 않은 매캐한 풍경을 만들어낸다. 그것을 베어내는 사람도, 태우는 사람도, 지켜보는 사람도, 기록하는 사람도 모두가 날카롭고 예민하다.*

*하얀색 라벨이 붙은 나무들은 곧 모두 베어질 운명에 처해있다. 난데없이 커다란 나무가 나타났지만 누군가가 옮겨 심었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 제주 출생인 이다솔 작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를 졸업하여 3여회의 개인전과 JUNGLE(아라리오 미술관), 제주조점(김만덕 기념관), IMAGE(초계미술관) 등 23여 회의 단체전, Jeju Braille Installation Project 구억리 마을 물탱크, 저지리 제주현대미술관 등 7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작가이다.

□ 재단은 아트큐브를 통해 창의적, 실험적인 전시작가의 발표 기회를 확대하고 도내 전시 공간을 보다 유연하게 확충하였다.

□ 또한, 도민·관광객들에게는 찾아오는 전시가 아닌, 찾아가는 전시를 통해 문화향유 기회를 확산시켜 더 풍성한 제주의 문화생활을 제공하고 있다.

□ 아트큐브 3차 전시 및 다음 전시에 대한 안내는 제주문화예술재단 블로그 ([blog.naver.com/jcaf9814](http://blog.naver.com/jcaf9814))에서도 볼 수 있다.

□ 3차 전시 개요

- 일정 : ~ 2017년 1월 31일(화)
- 장소 : 절물자연휴양림
- 작가 : 이다슬
- 작품 설명

	<p>[단풍을 볼 수 없는 청년에 대한 이야기]          나는 단풍으로 물든 숲을 보고 싶었지만          가족과 함께 가을 산에 올랐을 때          내가 본 것은 흑갈색으로 뒤덮인 나무들뿐이었다.          아빠와 엄마가 그리고 동생들이          단풍을 보며 예쁘다고 말할 때          나도 예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중학생이 돼서야 나의 눈이 적녹색약(赤綠色弱)인          것을 알았고          빨간색과 녹색이 섞이면 나의 눈은 흑갈색으로          인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단풍을 볼 수 없는 눈을 가졌다.</p>
	<p>[5818]          소나무가 없는 숲은 넝쿨에 점령당한 지          오래이지만, 사람들은 잘 모른다.          어둠에 갇힌 숲 속에서 사람들은 갈 길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죽어가는 소나무를 베어 가루로 만들고 태우는          것밖에 없지만, 그 연기마저 다시 숲을 가득          채우며          아름답지 않은 매캐한 풍경을 만들어낸다.          그것을 베어내는 사람도, 태우는 사람도, 지켜보는          사람도, 기록하는 사람도          모두가 날카롭고 예민하다.          하얀색 라벨이 붙은 나무들은 곧 모두 베어질          운명에 처해있다.          난데없이 커다란 나무가 나타났지만          누군가가 옮겨 심었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p>
	<p>* 문의 :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진흥팀 부혜진 064-800-9155 / hj7300@jcaf.or.kr          붙임 1. 아트큐브 3차 전시 작품 사진</p>
	<p>- 3 -</p>